

온정적 성차별주의 인식 향상 및 임파워먼트를 위한 온라인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이 승 원

자살과 학생정신건강연구소

서 영 석[†]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본 연구에서는 여자대학생들이 일상에 만연해있는 온정적 성차별주의와 그 부정적인 영향을 인식하고, 성차별에 대한 인식이 증진되면서 수반되는 심리적 불편감이나 무력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경험학습 이론과 여성주의상담이론 및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개발된 3회기 온라인 프로그램(인식 향상 및 임파워먼트 프로그램: 실험집단)과 온정적 성차별주의 인식 향상에만 초점을 둔 3회기 온라인 프로그램(인식 향상 집단: 비교집단)이 온정적 성차별주의와 여성임파워먼트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와 진로 포부, 우울, 공동행동 참여의도에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실험집단(n=20)과 비교집단(n=18) 모두 프로그램 참여 이후 온정적 성차별주의 수준이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여성임파워먼트의 경우에는 몇몇 하위 요인(자기돌봄, 유능감, 여성성 수용)에 대해 실험집단에서만 유의한 변화가 나타났다. 한편, 진로 포부, 우울, 공동행동 의도에 대해서는 집단 간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논하였다.

주요어 : 온정적 성차별주의, 임파워먼트, 경험주의 학습 이론, 여성주의 상담, 프로그램 개발

* 본 연구는 이승원(2017)의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여대생의 온정적 성차별주의 극복을 위한 온라인 임파워먼트 프로그램 개발 연구’을 요약한 것임.

† 교신저자 : 서영석,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Tel : 02-2123-6171, E-mail : seox0004@yonsei.ac.kr

‘무거운 짐은 남성이 들어주는 것이 매너다’, ‘엄마가 아이를 돌보는 것이 아이의 정서 발달에 좋다’, ‘여성은 섬세하기 때문에 가정을 더 잘 돌볼 수 있다’는 표면적으로는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들이지만, 이들은 모두 성차별 특히 온정적 성차별을 표현하고 있다. ‘온정적 성차별주의’(benevolent sexism)는 현대 사회에 만연한 미묘하고도 암묵적인 성차별을 의미하는데(안상수, 김혜숙, 안미영, 2005), 외견상 여성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견지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전통적인 여성의 성역할을 강조한다(Glick & Fiske 1996). 자기개발, 진로선택과 같은 발달 과업에 직면하는 대학생 시기에 여자 대학생들은 사회 및 대학 내에 존재하는 성차별적 태도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진로포부 수준이 낮아지는 등(유성경, 홍세희, 이아라, 2006) 남자대학생들보다 심리적 장벽을 더 크게 지각한다(임윤서, 안윤정, 2016). 본 연구에서는 여자대학생들이 우리사회에 만연한 온정적 성차별주의를 인식하고 온정적 성차별주의의 부정적인 영향을 극복하기 위한 온라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양가적 성차별주의 이론(Ambivalent Sexism Theory; Glick & Fiske, 1996)의 핵심 개념이다. 양가적 성차별주의 이론에 따르면, 부부 관계 등 남녀 관계에는 친밀함과 상호의존 등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하면서도 동시에 성차별적인 권력 구조가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성차별의 한 종류인 온정적 성차별 역시 남녀 간에 존재하는 권력 관계를 존속시키는데 기여한다(Glick et al. 2000). 온정적 성차별은 세 개의 하위 개념, 즉 보호적 부성주의, 보완적 성역할 분화, 친밀한 이성애로 개념화된다(Glick & Fiske, 1996). ‘보호

적 부성주의’는 여성을 도움이 필요하고 보살펴야 하는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남성은 여성에게 정치, 경제 및 사회적 자원을 제공해주어야 한다고 가정한다(Glick & Fiske, 1996). ‘보완적 성역할 분화’는 남성에게 부족한 도덕성, 심미적 감각, 이타성을 여성에게 강조하고(Glick & Fiske, 1996; Overall, Sibley, & Tan, 2011), 여성의 능력과 역할을 가정에서 제한하는 전통적인 성차별주의를 부드럽고 완곡하게 표현한다(Eagly & Mladinic, 1993). 마지막으로, ‘친밀한 이성애’는 남성과 여성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둘 간의 낭만적 관계가 필요하다고 가정하면서, 남성의 완전한 성공을 위해 사랑하는 여성의 존재가 필요한 반면 여성에게는 남성의 내조자로서 정숙과 순결을 강조하고 이를 긍정적인 덕목으로 칭송한다.

이렇듯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적대적 성차별주의와는 달리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 중 긍정적인 특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 남성과 여성 모두 온정적 성차별을 성차별로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Kilianski & Rudman, 1998). 실제로 미국(Kilianski & Rudman, 1998)과 네덜란드(Barreto, Ellemers, Piebinga, & Moya, 2010) 대학생들은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나타난 상황을 성차별 상황으로 인식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온정적 성차별주의를 가진 사람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남성 뿐 아니라 여성 또한 거부감 없이 온정적 성차별을 내면화할 가능성이 높다(Hammond, Overall, & Cross, 2016). 한편,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가부장적인 유교문화가 뿌리깊이 남아있는 사회에서 더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Glick et al. 2000). 이는 여성들이 여성에 대한 위협이나 힘으로 대변되는 적대적 성차별을 피하기 위해 보호와 애정으

로 표현되는 온정적 성차별을 수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Jackman, 1994; Overall et al. 2011).

여성들이 온정적 성차별을 수용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남성들로부터 보호와 돌봄을 얻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온정적 성차별주의에 스스로를 속박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여성들이 온정적 성차별주의에 노출될수록 독립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행동하는 경향이 줄어드는 대신(Feather, 2004),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수동적인 태도로 남성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의존적 성향이 커진다(Shnabel, Bar-Anan, Kende, Bareket, & Lazar, 2016). 더욱이, 온정적 성차별주의를 더 많이 수용할수록 자신이 무능력하다는 침투적 사고를 더 많이 하고(Dumont, Sarler, & Dardenne, 2010), 자기의심은 증가하는 반면 자존감은 낮아지며(Dardenne, Dumont, & Bollier, 2007), 경제력 등 더 높은 지위를 추구하려는 태도(Rudman & Heppen, 2003)와 높은 지위를 획득할 수 있다는 믿음(Dasgupta & Asgari, 2004)은 약해지고, 우울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Jezini, 2013). 또한 온정적 성차별주의를 수용하는 여성일수록 현재의 불평등한 사회체제를 수용하고(Jost & Kay, 2005) 사회 변화의 필요성을 덜 느끼며(Jost & Hunyady, 2005), 사회에서 여성으로서 받는 이익이 많다고 생각하는 등(Jost & Hunyady, 2005) 현재 사회체제가 정당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결국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사회 변화를 위한 여성들의 공동행동 참여 의도를 감소시켜(Becker & Wright, 2011), 장기적으로는 사회의 성차별적 구조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온정적 성차별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개입

들이 개발되었고 그 효과를 입증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연구자들은 일상의 맥락에서는 온정적 성차별주의와 그 영향을 알아차리기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면서(Becker & Swim, 2011),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를 인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Dardenne et al. 2007). 따라서 여러 연구에서 성차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후 성차별을 지각하는 능력이 향상되는지 확인하였는데, 개입 후 참여자들이 온정적 성차별에 동의하는 정도가 확연히 감소하였다(김시연, 2016; Becker & Swim, 2011; Case, 2007). 이러한 연구들은 대학교 강의 등을 활용한 중장기 연구(Case, 2007; Yoder, Miles, & Raffa, 2016)와 실험적 개입을 통한 단기 연구(김시연, 2016; Becker & Swim, 2011; Case, Hensley, & Anderson, 2014)로 구분할 수 있다.

Case(2007)는 현대사회에서 성차별적인 태도가 노골적으로 표현되는 것은 줄어든 반면, 미묘하고 은밀한 방식으로 성차별을 표현하는 경우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Case는 한 학기 동안 대학생을 대상으로 여성학 강의를 진행한 후 온정적 성차별주의를 포함한 성차별적 태도의 변화를 확인했는데, 남성특권 인식과 현대 성차별주의(modern sexism)는 유의미하게 변한 반면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변하지 않았다. 연구자는 강의 중에 직접적으로 온정적 성차별주의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변인에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고, 개입 과정에서 온정적 성차별을 명시적으로 다룰 것을 제안하였다. 이후 Yoder 등(2016)은 연구방법론 강의를 수강한 대학생들의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변하는지를 확인했는데, 수강생들은 한 학기 동안 온정적 성차별주의를 변인으로 포함

한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였다. 그 결과, 대학생들의 온정적 성차별주의 수준이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정적 성차별주의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개입 과정에 온정적 성차별을 구체적으로 포함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온정적 성차별주의를 삶의 경험과 연계시키는 활동이 필요함을 시사한다(Yoder et al. 2016). 한편, Case(2007)와 Yoder 등(2016)의 연구처럼 학교 수업에서 개입을 실시할 경우 연구결과가 수업을 선택한 학생들에게만 적용되고, 수업 평가 기준이 학생들의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통해 개입을 실시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학교라는 제한된 맥락에만 적용될 수 있고,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제한점이 있다(Lim, Tormshak, & Dishion, 2005). 현장에서는 단기 개입에 대한 요구가 크기 때문에(노이경, 정남운, 2007), 과정과 규모를 간소화한 개입이 필요하다.

이런 필요성을 반영해서 최근 단기적인 개입을 통해 온정적 성차별에 대한 민감성과 수용도의 변화를 확인하려는 노력들이 진행되었다(예, 김시연, 2016; Becker & Swim, 2011, 2012; Case et al. 2014). 예를 들어, Becker와 Swim(2011)은 독일과 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상에서 1주일 간 구조화된 일기를 작성하게 하고 온정적 성차별에 대한 인식이 변하는지 확인하였다. 구조화된 일기에는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온정적 성차별 상황이 목록으로 제시되었고, 참여자들은 제시된 상황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는지, 해당 사건이 얼마나 성차별적으로 느껴졌는지를 매일 평정하였다. 그 결과 온라인 개입 후 참여자들이 온정적 성차별주의에 동의하는 정도가 유의미하

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일상에서 경험하는 온정적 성차별을 떠올리면서 성차별에 대한 정보를 능동적으로 처리했을 때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1주일간의 단기 개입을 통해서도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연구자들은 연구가 종료된 후 참여자들에게 ‘대학 내 성차별 감소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을 안내하고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온정적 성차별주의에 대한 인식 수준이 향상된 실험집단의 서명 참여도가 비교집단의 서명 참여도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내에서도 유사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김시연(2016)은 구직면접 상황을 재연한 실험을 실시하였는데, 우선 면접관이 실험참여자들에게 온정적 성차별을 담은 발언을 한 후 참여자들의 인지 수행 능력(예: 직무 능력)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면접 상황 직후 실험 집단의 참여자들에게는 온정적 성차별주의 이론을 기술한 짧은 읽기 자료를 제공하여 읽게 하였고, 비교 집단의 참여자들에게는 읽기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그 결과 읽기 자료에 노출된 참여자들의 인지 수행 능력, 연구 참여 동기 수준, 자존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온정적 성차별주의에 동의하는 수준이 감소되는 등 인식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김시연, 2016). 이상의 연구들은 단기간에 걸친 읽기 또는 글쓰기 작업을 통해서도 온정적 성차별에 대한 민감성이 향상되고 수용 수준이 감소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종합하면, 온정적 성차별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온정적 성차별에 대한 인식내지는 민감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평소

차별로 인식하지 않았던 것을 차별로 인식하게 될 때 태도 변화에 대한 동기가 커질 수 있음을 고려하면(Monteith, 1993; Good & Woodzicka, 2010 재인용), 온정적 성차별주의에 대한 인식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여자대학생들의 온정적 성차별주의 극복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성차별로 지각되는 사건이 증가할수록 개인의 우울, 분노, 불안, 신체 증상 또한 증가한다는 것이다(Fischer & Bolton-Holz, 2010; Moradi & Subih, 2002; Swim, Hyers, Cohen, & Ferguson, 2001). 즉, 단순히 온정적 성차별에 대한 인식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에 그칠 경우, 성차별로 지각되는 사건들이 증가함으로써 개인의 심리·정서적 불편감이 커지는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 결국, 온정적 성차별주의를 온전히 극복하기 위해서는 온정적 성차별에 대한 인식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과 함께 인식 수준이 증가함으로써 인해 발생하는 심리·정서적 부작용을 상쇄시키는 전략을 동시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성차별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면서 동시에 심리·정서적 불편감이 증가하는 현상은 여성주의 정체성 발달 모델(Feminist Identity Development Model; Downing & Roush, 1985)에서 폭로(revelation)단계 여성들이 보이는 특징과 매우 유사하다. 이 단계에 속한 여성들은 전통적인 성역할의 적절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되고 지배계층인 남성과 사회 구조에 대해 분노를 느끼게 되는데(Downing & Roush, 1985), 동시에 과거 스스로에게 씌웠던 억압에 대해 죄책감을 경험하는 등(Fisher & Bolton-Holz, 2000) 심리적 취약성이 두드러지게 된다(Yoder, 2012). 따라서 이 단계의 여성들에게는 차별로 인한 부정적 감정을 타당화하고 자존

감을 고양시키는 개입(Harlan, 1998), 특히 임파워먼트(empowerment) 과정을 통해 기존의 제도화되고 사회화된 성별이 아니라 자신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에 대해 확신을 갖고(Downing & Roush, 1985; Malkin & Stake, 2004),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Yakushko, 2007). 결국, 온정적 성차별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졌으나 동시에 무력감을 호소하거나 자존감이 낮아진 여성들을 대상으로 강점에 초점을 두고 자발성과 주체성을 강화시키는 임파워먼트 개입이 성차별을 온전히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여성주의상담의 핵심 개념인 임파워먼트는 1940년대 사회학에서 등장한 개념으로, 시민권리운동, 인권운동, 여성해방운동과 함께 사용되기 시작했다(김안나, 최승아, 2013). 임파워먼트(empowerment)는 무력감, 억압, 통제감 상실과 반대되는 개념으로(Rapport, 1984), 통일된 정의는 없지만 학자들은 문제해결능력 향상, 대인관계기술 및 자기주장 향상, 긍정적 자기지각의 고양, 사회적 활동 수준의 증가 등으로 임파워먼트를 정의한다(Moradi & Funderburt, 2006; Worell, 2001). 특히, 임파워먼트는 여성 정신건강의 주요 차원으로(Worell, 2001), 사회문화적 억압에 대한 여성의 무력감을 다루는 중요한 도구다(Parsons, 1999; 오옥선, 2014 재인용). 여성주의상담에서 임파워먼트 개입은 개인을 억압하는 사회문화적 요소에 대해 내담자가 대항할 수 있도록 힘을 강화하는 전략을 의미하며(Kaplan, 2000), 삶의 목표를 인식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장벽들을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Worell, 2001). 임파워먼트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의 강점 탐색 및 강화와 함께 저해 요인의 파악과 극복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최명민, 2002). 즉,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도록 도와주어야 하고(Henderson-King & Stewart, 1994), 동시에 목표 설정이나 비판적 사고를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Lloyd & Berthelot, 1992). 이러한 임파워먼트 개입은 여성의 진로 관련 효능감을 향상시키고(Chronister & McWhirter, 2003; 2006), 우울 수준을 감소시키며(배제현, 정경용, 2013), 사회변화를 요구하는 사회 운동 참여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경희, 2004). 그러나 정작 성차별 관련 연구에서는 임파워먼트 개입을 많이 활용하지 않았는데, 특히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임파워먼트 개입이 온정적 성차별주의 및 관련 현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임파워먼트 개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 프로그램이 여자 대학생들의 온정적 성차별주의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며, 인식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심리정서적 불편감(본 연구에서는 우울)을 줄이고, 임파워먼트를 증진시키는지 검증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온정적 성차별에 대한 인식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비교집단과, 인식 향상과 임파워먼트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실험집단을 설정하여 개입의 효과를 비교하였다. 선행연구(Zawadzki, Danube, & Shields, 2012; Zawadzki, Shields, Danube, & Swim, 2014)에서도 유사한 실험설계를 적용했는데,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 불평등에 관한 정보제공을 위주로 프로그램을 실시한 비교집단과 정보제공 뿐 아니라 경험학습적 개입을 추가적으로 실시한 실험집단에서 자기효능감이 차별적으로 변하는지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암묵적 형태로 나타나는 온정적 성차별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온정

적 성차별에 대한 인식 증진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주장(Dardenne et al. 2007)과 온정적 성차별주의를 삶의 경험과 연계시키는 활동을 제공한 선행연구(예, 김시연, 2016; Becker & Swim, 2011, 2012; Case et al. 2014; Yoder et al. 2016)를 토대로 온정적 성차별 인식 증진 활동을 구성하고 이를 비교집단과 실험집단에 모두 실시하였다. 연구자들은 프로그램 실시 후 두 집단 모두 온정적 성차별에 대한 인식과 민감성이 증가하고 온정적 성차별을 수용하는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한편, 실험집단에는 임파워먼트 개입을 추가로 실시하여 성차별에 대한 인식 증진으로 인한 심리적 불편감(우울)이 줄어들고 임파워먼트 수준이 향상되는지를 확인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온정적 성차별주의와 임파워먼트, 심리적 불편감을 나타내는 우울 뿐 아니라 선행 연구를 통해 온정적 성차별주의(Jezzini, 2013; Jost & Kay, 2005; Rudman & Heppen, 2003) 및 임파워먼트 개입(김경희, 2004; 배제현, 정경용, 2013; Chronister & McWhirter, 2006)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진로 포부와 공동행동 참여를 종속변인으로 채택하였다. 연구자들은 임파워먼트 개입을 추가적으로 실시한 실험집단이 비교집단보다 우울 수준은 낮고, 임파워먼트, 진로 포부, 공동행동 참여는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경험학습적 접근을 토대로 실험집단의 임파워먼트 개입을 구성하였다. 경험학습적 접근은 경험에 대한 반성적 관찰을 통해 새로운 경험이나 행동을 유도하는 교육적 관점으로(Kolb, 1984), 학습자의 경험과 제시되는 문제(예, 온정적 성차별)를 연계함으로써 문제 해결에 대한 동기를 증진시키고(Yoder et al. 2016), 자신의 삶을 구성하는

맥락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습득하도록 돕는다(Murrell, 2001). 특히, 경험학습적 접근은 학습자의 임파워먼트 증진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성찰을 통해 자신의 경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해석해봄으로써 사회적 맥락에 대한 의식화와 임파워먼트를 향상시킬 수 있다(Shellman, 2014). 실제로, 경험학습을 기반으로 한 성찰적 글쓰기는 학습자의 심리적 성장과 변화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고(오태호, 2012), 자신과 외부 세상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세원,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가 자신의 경험과 성차별주의를 연계함으로써 성차별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학습하고, 성차별의 부정적 영향과 이에 대한 무력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경험학습적 글쓰기 활동을 제작하여 온라인으로 실시하였다. 심리교육의 대안적 접근으로 간주되는 온라인 프로그램은(Hintz, Frazier, & Meredith, 2015) 대면 프로그램만큼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상대적인 이점 또한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Marks, Susan, & Parkin, 1998). 예를 들어, 심리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할 경우 전통적인 접근보다 이용자들의 접근성이 높아지고(권성호, 1997; 정충용, 2001), 이용자가 편리한 시간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여유롭게 활동에 몰두할 수 있다(허운나, 1996). 본 연구에서도 온라인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전국의 여자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 참여자들이 원하는 시간에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프로그램에 대한 몰입도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온정적 성차별주의 관련 선행연구들(예: 김시연, 2016; Becker & Swim, 2011)을 근

거로, 온정적 성차별주의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관련 활동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모두 프로그램 참여 후 온정적 성차별주의 태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다(가설 1). 둘째, 임파워먼트 프로그램 관련 선행 연구들(예: 곽금연, 2009; 박애선, 이영희, 1994)을 토대로, 실험집단에서만 여성 임파워먼트 수준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가설 2). 셋째, 프로그램 실시 후 실험집단의 우울 수준이 비교집단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하였다(가설 3). 비교집단의 경우 온정적 성차별 인식 향상으로 인해 온정적 성차별을 수용하는 정도가 적어지고 따라서 우울 수준이 낮아지지만 인식되는 성차별 사건이 많아짐에 따라 우울감을 느껴 결국 우울은 인식 향상 이전의 상태로 회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반면, 실험집단에서는 인식 향상을 위한 개입 뿐 아니라 임파워먼트 개입을 추가로 실시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자기가치감이 고양되고 이로 인해 우울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넷째, 두 집단 모두 진로포부 수준이 증가하지만 증가폭은 임파워먼트 개입을 추가적으로 실시한 실험집단에서 더 클 것으로 예상하였다(가설 4).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참여 이후 실험집단이 비교집단보다 사회운동 참여 수준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다(가설 5). 이는 성차별 인식 수준이 증가할수록 사회정치적 운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Becker & Swim, 2011; Becker & Wright, 2011), 임파워먼트 수준이 증가할수록 사회정치적 활동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선행연구(예: Worell, 2001)를 토대로 한 것이다. 즉, 인식과 임파워먼트 수준이 모두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실험집단에서 사회정치적 참여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방 법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전국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연구에 필요한 참여자의 수를 산정하기 위해 G-Power 프로그램(Faul, Erdfelder, Buchner, & Lang, 2009)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와 비슷한 절차로 진행된 선행연구(Becker & Swim, 2011, 2012)에서 중간 정도의 효과 크기를 보고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Cohen(2013)의 기준에 따라 중간 정도의 효과에 해당하는 참여자 수를 산정하였다. 효과크기 0.25, 유의 수준 .05, 검정력 .80, 3회 반복 측정을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 각 집단에 14명의 참여자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연구도중 탈락자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여 산출된

수의 2배 이상을 모집하기로 결정하였다. 3주 동안 대학생들이 정보 공유를 위해 방문하는 온라인 커뮤니티(www.specup.com)에 연구 홍보문과 참여 완료 시 4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다는 연구 안내문을 게시하였다.

문자메시지로 참여 의사를 밝힌 103명을 대상으로 무선할당을 실시했고, 참여의사를 밝힌 순서에 따라 홀수 번호가 부여된 사람은 실험집단에, 짝수 번호가 부여된 사람은 비교집단에 각각 할당하였다. 연구 참여를 희망한 103명 중 50명이 연구를 완료하였다. 이때 설문 문항에 포함된 4개의 타당도 체크 문항(“이 문항은 ‘매우 그렇다’에 응답해주십시오”)에 대한 응답 내용과 이상치(outlier) 여부를 확인하였고, 프로그램 참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여러 문항에 ‘모르겠다’로 응답한 참여자들은 자료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최종 자료 분석에 포함된 참여자들은 실험집단 20명, 비교집단

표 1.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실험 집단 (n=20)	비교 집단 (n=18)
		M(SD)	M(SD)
연령		21.40(1.60)	22.28(2.53)
재학 학기		5.80(2.24)	6.61(1.61)
전공	사회과학	40%	33.33%
	인문	35%	50%
	공학	5%	5.66%
	자연	5%	5.66%
	예체능	10%	5.66%
	기타	5%	0%
대학 소재지	서울	55%	83.3%
	경기	30%	5.66%
	광역시	5%	5.66%
	기타	10%	5.66%

18명이었으며,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실험집단 21.4세($SD=1.60$), 비교 집단 22.28세($SD=1.53$)였다. 평균 재학 기간은 실험집단 5.8학기($SD=2.24$), 비교집단 6.61학기($SD=1.1$)였다. 참여자들의 전공은 두 집단 모두 사회과학 계열과 인문 계열이 과반수를 차지하였고, 재학 중인 대학 역시 두 집단 모두 과반수가 서울에 위치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에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연구 절차

프로그램 개발

연구자들은 실험집단 참여자들이 본 연구에서 개발한 ‘온정적 성차별 인식 및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다음과 같은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였다. 첫째, 실험집단 참여자들은 온정적 성차별이 일상에 만연해있으며 특히 여성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자신의 경험과 관련 지을 수 있다. 둘째, 자신의 경험에서 온정적 성차별 상황을 떠올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셋째, 삶에서 경험한 어려움과 역경을 극복한 경험들을 떠올리며 자신의 강점과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경험학습 이론과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실험집단을 위한 프로그램 활동을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박애선과 이영희(1994)가 여성주의 상담을 토대로 개발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참고해서 ‘인식 및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을 3회기로 구성하였고, 특히 세 번째 회기의 활동은 최근 개발된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최금희, 2014)을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박애선과 이영희가 개발한 프로그램은 여

성의 고정관념이 어떤 사회화 과정을 거쳐 형성되며 그러한 고정관념이 자신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분석하고,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을 논하고 주장적인 행동을 연습하며, 자신의 강점을 인식하고 바람직한 자아상을 형성하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본 연구가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경험학습적 접근 및 임파워먼트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박애선과 이영희(1994)가 개발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이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여성주의 집단상담(유경희, 김기중, 2004)과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한 임파워먼트 증진 집단상담(김정미, 김성희, 2005)의 개발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되었다.

실험집단에서 1회기는 온정적 성차별 정보 획득 및 성역할 분석, 2회기는 대처 전략 및 계획, 3회기는 참여자 자신의 강점을 확인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1회기는 온정적 성차별에 대한 인식 향상을 목표로 활동내용을 구성하였는데, 참여자들은 양가적 성차별주의에 대해 배우고, 일상에서 온정적 성차별을 알아차리며, 자신의 경험과 온정적 성차별을 연결 짓고 경험을 재평가하는 활동에 참여하였다. 우선, 참여자들은 온정적 성차별주의자인 A씨에 대한 글을 읽고 그에 대해 얼마나 호감을 느끼는지, 그의 이야기에서 차별적인 요소가 느껴졌는지 등에 대해 5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였다. 이 글은 연구자가 선행연구(Kilianski & Rudman, 1998)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참여자가 글에 대한 평정을 마친 후에는 A씨가 온정적 성차별주의자에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과 함께 온정적 성차별주의에 대한 읽기 자료를 제시하였다. 읽기 자료 역시 선행 연구(김시연, 2016; Becker & Swim, 2012; Good & Wookzicka, 2010)를 참

고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그런 다음, 성역할 분석(Worell & Remer, 1992)을 통해 성차별과 참여자 자신의 경험을 연결 짓게 하였다. 성역할 분석은 참여자의 삶에서 경험했던 성역할 메시지를 확인하고, 메시지의 긍정적, 부정적 결과를 탐색하고 메시지를 학습하게 된 과정을 알아차리며, 변화를 촉진하는 자기 메시지로 새롭게 구성한 후, 새로운 메시지와 일치되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행동과 노력 등을 확인하는 활동으로 구성하였다(박애선, 이영희, 1994). 1회기 활동을 통해 일상에 만연한 온정적 성차별에 대한 참여자들의 인식과 민감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실험집단 프로그램의 2회기와 3회기는 참여자들의 임파워먼트를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이때 연구자들은 김정미(2004)의 정의를 채택하여 여성 임파워먼트를 5개의 차원(여성성 수용, 자기 신뢰, 자기 돌봄, 자기 주장, 통제감/유능감)으로 구성된 것으로 개념화하고, 프로그램 실시 후 각 차원에 대한 참여자들의 수준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우선 참여자들은 1회기에 수행한 활동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글로 표현하는 활동으로 2회기를 시작하였다. 이는 자기표현을 억압해온 기존의 모습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여성들의 임파워먼트를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김정미, 2004)에 근거한 것으로, 글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욕구와 생각을 중시하는 자기 돌봄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런 다음 참여자들은 온정적 성차별 태도를 보이는 사람과 상황을 알아차리고, 온정적 성차별 상황에서 세 가지 방식(주장적, 수동적, 공격적) 중 가장 효과적인 방식을 채택하고, 대처 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을 예상하며,

이때 활용 가능한 사회적 자원을 탐색하는 활동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성역할로 인해 자기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에게 효과적이고(Farmer, 1984), 여성들이 고정관념을 초월하고 대인관계에서 임파워먼트를 증진시키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Enns, 2003). 2회기 활동을 통해 참여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보다 적절하게 표현하고(자기 주장), 대인관계에서 보다 자신 있게 대응하며(대인 유능감), 자신의 행동에 대한 신뢰감(자기신뢰)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마지막으로, 실험집단 참여자들은 3회기에 자신의 강점을 확인하고 단점을 긍정적으로 재해석하며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는 활동에 참여하였다. 이는 자신의 강점과 능력을 글로 표현할 경우 소수자들의 고정관념이 감소되고 수행 능력 또한 향상된다는 선행연구(Bowen, Wegmann, & Webber, 2013)에 근거한 것이다.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최근 개발된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최금희, 2014) 중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을 참고하였다. 즉, 참여자들은 자신의 강점 목록을 작성하고, 단점 목록을 작성한 후 단점을 장점으로 다시 표현하는 활동에 참여했다. 또한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을 적어보고, 스스로를 향한 격려 편지를 작성하는 활동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참여자들의 자기가치감과 효능감이 증진됨으로써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한편, 비교집단에 속한 참여자들은 3회기로 구성된 '인식 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의 유사 프로그램들을 참고해서 3회기 모두 온정적 성차별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는 활동으로 구성하였고, 실험집단과 비슷하게 회기 당 10~15분 정도 소요되었다.

구체적으로, 1회기에 참여자들은 실험집단(인식 및 임파워먼트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온정적 성차별주의자를 묘사한 글과 읽기 자료를 제공받았다. 또한, 연구자가 선행 연구(Becker & Swim, 2011)를 참고해서 제작한 온정적 성차별 사건 목록을 보면서, 각각의 사건이 얼마나 성차별적으로 지각되며 이로 인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를 평정하였다. 이러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온정적 성차별에 대한 참여자의 인식과 민감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2회기에는 온정적 성차별에 대한 참여자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온정적 성차별주의와 적대적 성차별주의에 해당하는 문항(양가적 성차별주의 척도; Glick & Fiske, 1996)을 참여자에게 제시한 후, 각각의 문항이 온정적 성차별에 해당되는 정도를 평정하게 하였다. 이를 통해 양가적 성차별주의에 대한 참여자의 전반적인 이해도뿐만 아니라 온정적 성차별주의와 적대적 성차별주의를 구분하는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런 다음, 참여자들은 자신의 결혼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온정적 성차별 상황 목록을 작성하였다. 3회기에 참여자들은 직장 생활과 미디어(광고, 영화, 드라마 등)에서 경험할 수 있는 온정적 성차별 상황 목록을 작성하였다. 실험집단 프로그램과 비교집단 프로그램의 회기 별 내용을 표 2에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프로그램 개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하고 예비 연구를 실시하여 피드백을 토대로 프로그램을 수정하였다. 우선, 상담 전공 교수에게 프로그램의 내용과 과정, 제시 방식에 대해 피드백을 받고 프로그램을 수정하였다. 그런 다음, 본 연구에서 개발한 두 개의 프로그램을 상담 전공 대학원생들에게 실시하고, 프로그램이 목적에 맞게 구성되었는지를 평정하게 하였다. 이를 위해 상담 전공 박사 과정생 1명과 석사 과정생 2명이 참여했고, 연구자로부터 각 프

표 2.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프로그램 구성 내용

	실험집단(인식 및 임파워먼트 프로그램)		비교집단(인식 향상 프로그램)		소요 시간
	목표	활동	목표	활동	
1회기	온정적 성차별 민감성 향상	1. 온정적 성차별주의 정보 제공 2. 성역할 분석	온정적 성차별 민감성 향상	1. 온정적 성차별주의 정보 제공 2. 온정적 성차별 사건 확인하기	10분
2회기	대처 연습	1. 생각과 감정 표현하기 2. 성차별 상황 대처 계획하기	온정적 성차별 민감성 향상	1. 양가적 성차별주의 구분하기 2. 결혼생활에서의 성차별 사건	10분
3회기	강점 향상	1. 생각과 감정 표현하기 2. 강점 확인하기 3. 나에게 쓰는 격려 편지	온정적 성차별 민감성 향상	1. 직장생활에서의 성차별 사건 2. 미디어에서의 성차별 사건	10분

로그래밍의 목적 및 내용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두 프로그램에서 제시하는 활동에 직접 참여하였다. 그런 다음, 각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이 개발 목적에 부합하는지, 두 프로그램이 서로 다른 목적에 부합하도록 제작되었는지를 연구자가 제작한 5점 Likert 척도 10개 문항을 사용하여 평정하였다(예: ‘인식 및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은 온정적 성차별주의에 대한 민감성 향상과 임파워먼트 증진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해, ‘인식 향상 프로그램’은 온정적 성차별주의에 대한 민감성 향상이라는 단일 목적을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두 프로그램이 그 목적에 있어 서로 다르게 구성되었습니까?). 평정자들이 모든 문항에 4점 이상의 점수를 부여했기 때문에 각 프로그램은 개발 목적에 맞게 구성되었으며, 두 프로그램은 서로 다른 실험적 조작으로써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육학 학사 4명에게 예비 연구를 실시하였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시문이 명료하지 않고 실시 화면이 조직적이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관련 사항을 수정하였다.

프로그램 실시 및 효과 검증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지원자들에게 사전 검사가 연계된 온라인 설문 링크를 문자메시지로 전달하였다. 사전 검사를 실시한 후 1주일 이 지난 다음 1회기 참여에 대한 안내 및 온라인 링크를 문자로 발송하였고, 각 회기를 마치고 3일이 지난 후 다음 회기에 대한 참여 안내 문자를 발송하였다. 매 회기는 유사한 절차로 진행되었는데, 참여자는 전송 받은 온라인 링크를 누르고 자신의 고유 번호를 입력하면 각 회기의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다. 참여자의 생각과 경험을 글로 작성하는 경우에

는 최소 30자 이상의 길이로 글을 작성하도록 요구하였다. 회기 간 시간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직전 회기 실시 후 5일 동안 다음 회기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추후 과정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지 않았다. 참여자가 해당 프로그램을 모두 마치면, 프로그램이 종료되었다는 안내문과 함께 사후 검사를 진행하도록 요청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참여가 연구 참여자들의 사회운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추후검사로써 참여자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학내 양성 평등을 위한 서명운동’을 온라인으로 전송하고 참여 빈도가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그러나 선행 연구(Becker & Swim, 2011)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 서명 운동에 참여한 참여자들의 수가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실제 행동으로 실천하기 이전 단계에 해당되는 행동 의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하였다. 결국, 양성 평등 운동 참여 의도를 측정하는 도구를 추후검사에 추가하였고, 사후검사 종료 6-8주 후에 주요 종속 변인(온정적 성차별주의, 여성임파워먼트)과 함께 추후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온라인링크를 참여자들에게 전송하였다.

측정 도구

온라인으로 실시한 설문에는 참여자의 연령, 대학 소재지, 재학 학기 수, 전공을 묻는 인구통계학적 문항들이 포함되었다. 또한 참여자가 성실하게 설문에 임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사전 설문과 사후 설문에 각각 두 문항씩 총 4개의 타당도 체크 문항(“이 문항은 ‘매

우 그렇다’에 응답해주시오”)을 포함시켰다. 사전 검사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온정적 성차별주의, 여성 임파워먼트, 사회적 바람직성, 우울, 진로 포부를 측정하는 도구들로 구성되었고, 사후검사는 온정적 성차별주의, 여성 임파워먼트, 사회적 바람직성, 우울, 진로 포부를 측정하는 도구들로, 추후검사는 온정적 성차별주의, 여성 임파워먼트, 양성평등을 위한 공동행동 참여 의도를 측정하는 도구로 구성되었다. 사전-사후-추후검사에서 반복적으로 실시되는 척도들의 경우 반복 측정으로 인한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문지 내 제시 순서를 달리하였다.

온정적 성차별주의

참여자들의 온정적 성차별주의를 측정하기 위해, Glick와 Fiske(1996)가 개발한 양가적 성차별주의 척도(Ambivalent Sexism Inventory: ASI)를 안상수 등(2005)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형 성차별주의 척도(K-ASI)를 다시 안상수, 백영주, 김인순, 김혜숙, 김진실(2007)이 보완하여 제작한 한국형 다면성별의식검사(Korea Multiple Sexism Inventory: K-MSI) 중 온정적 성차별주의에 해당하는 문항들을 사용하였다. K-MSI는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를 측정하는 각 12개 문항 총 2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보호적 여성주의, 보완적 성역할분화, 친밀한 이성애 등 3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보호적 여성주의는 남성이 여성보다 권위, 권력, 신체적 힘에서 우월하기 때문에 약한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고 믿는 정도를 측정하고(예: “가벼운 짐일지라도 여성에게 들리기 보다는 남성이 들어 주어야 한다.”), 보완적 성역할 분화는 전통적 성역할을 수행하는 여성이 남성

의 특성을 보완해준다고 믿는 정도를 측정하며(예: “여자는 남자에 비해 가정을 잘 돌보는 세심함을 지니고 있다.”), 친밀한 이성애는 남성의 이상적인 반려자로 여성을 생각하는 정도를 측정한다(예: “남성은 여성과의 사랑이 없다면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모든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5점=매우 그렇다)로 측정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온정적 성차별주의를 더 많이 수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개념적으로 유사한 성차별주의 척도(여성에 대한 태도 척도, Spence & Helmreich, 1972; 한국형 남녀평등의식검사, 김양희, 정경아, 2000; 전통적 성차별주의 척도, Swim, Aikin, Hall, & Hunter, 1995)와 낮은 상관을 보여 변별 타당도가 확인되었다(안상수 등, 2007). 선행 연구에서 온정적 성차별주의 전체 문항에 대한 Cronbach’s α 는 .80으로 나타났다(이정원, 김혜숙, 2012). 본 연구에서 온정적 성차별주의 전체 문항에 대한 Cronbach’s α 는 사전검사에서 .89, 사후검사에서 .91, 추후검사에서 .91로 나타났다.

임파워먼트

참여자들의 임파워먼트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김정미와 김성희(2004)가 개발한 여성 임파워먼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여성 임파워먼트 척도는 여성성 수용, 자기신뢰, 자기돌봄, 유능감, 자기주장 등 5개 하위척도, 총 4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성성 수용’은 여성의 독특한 강점과 가치를 인식하고 여성으로서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정도를 묻는 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예: “나는 한 여성으로서의 강점을 인식하고 있다.”), ‘자기신뢰’는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신뢰하는 정도와 타인의

로부터 영향을 받는 정도를 묻는 12개의 역채점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예: “삶에서 내가 선택할 여지가 거의 없다고 느낀다.”). ‘자기돌봄’ 하위척도는 자신을 가치로운 사람으로 인정하고 자신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정도를 묻는 8개 문항(예: “지금은 예전에 비해 어떤 일을 판단할 때 나의 생각과 느낌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긴다.”), ‘유능감’은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과 관계에서의 유능감을 묻는 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예: “현재 내가 처한 상황에 최대한 잘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자기주장’ 하위척도는 자신의 존재 및 감정, 의견을 표현하는 정도를 묻는 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예: “다른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만 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는 내 욕구도 말할 수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고(1점=전혀 그렇지 않다, 5점=매우 그렇다), 점수가 높을수록 여성 임파워먼트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여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임파워먼트는 소진, 스트레스와 부적인 상관을 나타냈고(김정미, 2009), 성인 여성 표본에서는 우울과 부적 상관을, 자기 강도와는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김정미, 김성희, 2004). 김성희와 김정미(2004)의 연구에서 전체 문항에 대한 Cronbach's α 는 .9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에 대한 Cronbach's α 는 사전, 사후, 추후 검사에서 모두 .94로 나타났다. 또한 사전, 사후, 추후 검사에서 하위 변인의 Cronbach's α 는 여성성 수용 .86~.87, 자기신뢰 .87~.90, 자기돌봄 .70~.78, 유능감 .64~.74, 자기주장 .77~.80으로 나타났다.

우울

연구 참여자들의 우울 수준을 측정하기 위

해, 임상적 우울 환자가 아닌 일반인의 우울 증상을 측정하는(전경구, 권기덕, 김상기, 1999) Radloff(1977)의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를 전경구, 최상진과 양병창(2001)이 한국인에 맞게 수정하여 개발한 한국형 CES-D를 사용하였다. 한국형 CES-D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적용 가능하다는 사실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으며(배성우, 신원식, 2005),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여자들은 지난 1주일동안 각 문항(예: “내 인생은 실패작이라는 느낌이 들었다”)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행동하였는지를 5점 Likert 척도(1점 = 전혀 없었다[0일], 3점 = 자주[3-4일], 5점 = 매일[7일])로 평정한다. 척도에는 4개의 역채점 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증상을 더 많이 경험했음을 의미한다. 라틴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Jezini, 2013)에서 CES-D는 여성들의 온정적 성차별주의와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오보영, 이상희, 2013)에서 CES-D는 자아존중감, 진로태도성숙, 대학 적응과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척도 개발 연구(전경구 등, 2001)에서 전체 문항에 대한 Cronbach's α 는 .91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사전검사에서 .93, 사후검사에서 .93으로 나타났다.

진로 포부

여자대학생들의 진로 포부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O'Brien(1992)의 진로 포부 척도(The Career Aspiration Scale: CAS)를 최수옥(2002)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CAS는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신의 진로 안에서 성취를 향한 포부를 측정한다(예: “나는 내 진로분야에서 리더가 되고 싶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5점=매우 그렇

다)로 평정하고, 4개의 역채점 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수준의 진로 포부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여자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진로 포부는 진로 자기효능감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 진로 장애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최수옥, 2002). O'Brien과 Fassinger(1993)의 연구에서 전체 문항에 대한 Cronbach's α 는 .76, 최수옥(2002)의 연구에서는 .74, 본 연구에서는 사전 검사에서 .81, 사후 검사에서 .85로 나타났다.

공동행동 참여 의도

참여자들의 양성평등을 위한 공동행동 참여 의도를 측정하기 위해, Becker와 Wright(2011)가 개발한 공동행동 의도 척도(Collective Action Intention Scale)를 번역-역번역 과정을 거쳐 사용하였다. 연구자가 척도 개발자에게 10개의 원문항을 요청하였으며, 그런 다음 미국과 영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한국인이 1차 번역을 진행하였고, 심리학을 전공한 영어-한국어 이중언어자가 역번역을 실시하였다. 그런 다음, 미국인 1명과 한국인 통번역사 1인이 원문항과 역번역 문항이 의미상 유사한지 7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평정자들은 모든 문항에 대해 5점 이상의 점수를 부여하였고, 평정자들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최종 문항을 확정하였다. 공동행동 의도 척도는 양성평등을 위한 행동을 취할 가능성을 묻는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예: “여성들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점=매우 낮다, 5점=아주 높다)로 평정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양성평등을 위한 공동행동에 참여할 의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선행 연구(Becker & Wright, 2011)에서 공동행동 참여 의도는 온정적 성차별, 체제정당화 수준과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Becker와 Wright(2011)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도 .91로 나타났다.

사회적 바람직성

사회적 바람직성(social desirability)은 ‘설문 대상자가 실제로 생각하고 느끼는 대로 답하는 대신에 사회적 승인을 높이는 방식으로 응답하려는 성향’을 의미한다(Rubin & Babbie, 2008: 김용석, 2010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성차별주의와 같은 민감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참여자들의 사회적 바람직성을 공변인으로 설정하여 그 영향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성폭력과 같은 민감한 주제를 다룬 선행 연구(박하나, 장수미, 2012)에서도 참여자들의 사회적 바람직성을 측정하여 그 영향을 통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김용석(2010)이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한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Social Desirability Scale: SDS-24)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만 보편적이지 않은 행동(예: “나는 내 자신에 대해 항상 정직하다”)을 의미하는 인상 관리 하위요인 8개 문항과, 사회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보편적으로 보이는 행동(예: “나는 때로 자리에 없는 사람을 흥분 적이 있다”)을 의미하는 자기기만 하위 요인 1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평정한다(1점=전혀 그렇지 않다, 5점=매우 그렇다). 자기기만 척도는 4점 또는 5점으로 응답한 경우 1점을 부여하고 나머지 응답에는 0점을 부여한다. 인상관리 척도는 1점 또는 2점으로 응답한 경우 1점을 부여하고 나머지 응답에 0점을 부여하여 총합으로 계산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승인을 높이는 방식으로 응답하는 성향이 강함을 의미한다. 김용석(2010)의 연구에서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는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는 자기기만적 고양 척도, 허위성 척도와 정적 상관, 정신병적 경향성 척도와는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김용석(2010)의 연구에서 전체 문항에 대한 Cronbach's α 는 .8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사전검사에서는 .77, 사후검사에서는 .81로 나타났다.

중도 탈락자($M=3.13, SD=0.52$)가 사전 검사 탈락자($M=3.46, SD=0.44$)와 프로그램 완료자($M=3.59, SD=0.45$)에 비해 여성 임파워먼트 수준이 유의하게 낮았다(표 3 참조). 프로그램 완료자 38명을 대상으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사전점수가 동질적인지 확인하기 위해 다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Wilks' \Lambda=0.90, F(7,30)=0.49, p=.83$).

결 과

동질성 검증

연구가 진행되면서 탈락자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탈락 여부와 탈락 시기(사전 검사 후 탈락, 프로그램 중도 탈락, 프로그램 완료)에 따라 사전검사에서 종속변인(온정적 성차별주의, 여성 임파워먼트, 진로 포부, 우울)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다변량분석 결과,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Wilks' \Lambda=0.01, F(5, 61)=1865.60, p<.001$). 일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여성 임파워먼트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2)=4.76, p=.01$). Scheffé 검증 결과, 프로그램

상관 분석

주요 분석에 앞서, 변인 간 상관을 확인하였다.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모두에서 여성 임파워먼트는 우울과 부적 상관(사전: $r=-.57, p<.01$; 사후: $r=-.69, p<.01$), 진로 포부와는 정적 상관(사전: $r=.44, p<.01$; 사후: $r=.39, p<.05$)을 나타냈다. 여성 임파워먼트와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에서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으나, 추후검사에서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r=-.40, p<.05$). 집단 별로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비교집단에서만 추후검사에서 여성 임파워먼트와 온정적 성차별주의 간 상관이 유의

표 3. 프로그램 탈락자와 완료자의 사전 검사 동질성 검증

	1. 사전탈락자	2. 중도탈락자	3. 프로그램	F	df	p	Scheffé
	(n=17)	(n=13)	완료자(n=38)				
	M(SD)	M(SD)	M(SD)				
온정적 성차별	2.62(0.82)	2.30(0.79)	2.46(0.75)	0.60	2	.55	
여성임파워먼트	3.46(0.44)	3.13(0.52)	3.59(0.45)	4.76	2	.01*	2 < 1, 3
진로 포부	3.82(0.45)	3.45(0.75)	3.73(0.64)	1.40	2	.25	
우울	2.10(0.68)	2.30(0.45)	1.99(0.59)	1.31	2	.28	

주. * $p<.05$.

표 4. 변인 간 상관계수

	사전검사				사후검사			추후검사		공동행동
	1	2	3	4	1	2	3	1	2	
1. 성차별	-	-	-	-	-	-	-	-	-	-0.08
2. 임파워먼트	-.11	-	-	-	-.15	-	-	-.40*	-	.38*
3. 진로포부	-.13	.44**	-	-	.00	.39*	-			
4. 우울	.27	-.57**	.27	-	.35*	-.69**	-.30			
5. 바람직성	-.22	.59**	-.52**	.50**						

주. * $p < .05$. ** $p < .01$. 성차별=온정적 성차별주의. 바람직성=사회적 바람직성. 공동행동=공동행동 참여 의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r = -.57, p < .05$).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했을 때 여성 임파워먼트는 공동행동 참여 의도와 정적 상관($r = .38, p < .05$)을 나타냈는데, 집단 별로 상관을 확인한 결과 두 변인 간 상관이 실험집단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r = .48, p < .05$). 한편, 사전검사에서 사회적 바람직성이 여성 임파워먼트($r = .59, p < .01$), 진로 포부($r = .52, p < .01$), 우울($r = .50, p < .01$)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기 때문에, 해당 준거변인에 대한 주요 분석 시 사회적 바람직성을 공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온정적 성차별주의 변화

프로그램 실시 이후 연구 참여자들의 온정적 성차별주의 수준이 변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집단(실험집단, 비교집단)과 측정 시기(사

전, 사후, 추후)를 독립변인으로, 온정적 성차별주의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 참조). 그 결과, 측정 시기의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2, 35) = 4.37, p < .01$). 반면, 집단의 주효과($F(1, 36) = 1.19, n.s.$)와 집단과 측정 시기의 상호작용효과($F(2, 35) = 0.24, n.s.$)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측정 시기의 주효과에 대한 사후 분석으로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사전검사($M = 2.46, SD = 0.75$)보다 사후검사($M = 2.02, SD = 0.76$)에서 유의하게 낮았고($t(37) = 5.60, p < .01$), 사전검사보다 추후검사($M = 2.05, SD = 0.73$)에서 유의하게 낮았으며($t(37) = 5.46, p < .01$), 사후검사와 추후검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37) = -0.37, p > .05$). 따라서 가설 1은 지지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두 집단에 공통적으로 제공

표 5. 측정시기에 따른 집단 별 온정적 성차별주의 평균 및 표준편차

	사전검사	사후검사	추후검사
	$M(SD)$	$M(SD)$	$M(SD)$
실험집단($n = 20$)	2.35(0.67)	1.84(0.68)	1.84(0.63)
비교집단($n = 18$)	2.58(0.83)	2.23(0.80)	2.28(0.78)

된 온정적 성차별에 대한 민감성 증진 활동으로 인해 참여자들이 온정적 성차별을 수용하는 정도가 감소되었으며, 활동의 효과가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지속되었음을 의미한다.

임파워먼트 수준의 변화

프로그램 실시 이후에 연구 참여자들의 여성 임파워먼트 수준이 변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집단(실험집단, 비교집단)과 측정 시기(사전, 사후, 추후)를 독립변인으로, 여성 임파워먼트 총점을 종속변인으로, 여성 임파워먼트와 유의한 상관을 보인($r=.59, p<.01$) 사회적 바람직성을 공변인으로 하는 반복측정 공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6 참조). 그 결과, 집단의 주효과($F[1, 35]=0.06, n.s.$), 측정 시기의 주효과($F[2, 35]=0.09, n.s.$), 집단과 측정 시기의

상호작용효과($F[2, 35]=2.36, p=.102$)는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여성 임파워먼트 각 하위 변인을 대상으로 반복측정 공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든 하위 변인에 대해 집단의 주효과와 측정 시기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자기돌봄($F[2, 72]=3.46, p=.037$)과 유능감($F[2, 72]=3.80, p=.027$)의 경우 집단과 측정 시기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성 수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집단과 측정 시기의 상호작용 효과가 시사되었다($F[2, 72]=2.80, p=.067$). 여성 임파워먼트의 나머지 하위 변인인 자기신뢰와 자기주장의 경우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집단과 측정 시기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거나 경향성이 시사된 임파워먼트

표 6. 측정시기에 따른 집단 별 여성 임파워먼트 전체 평균 및 표준편차

	사전검사	사후검사	추후검사
	M(SD)	M(SD)	M(SD)
실험집단(n=20)	3.56(0.50)	3.69(0.53)	3.71(0.49)
비교집단(n=18)	3.62(0.45)	3.59(0.49)	3.58(0.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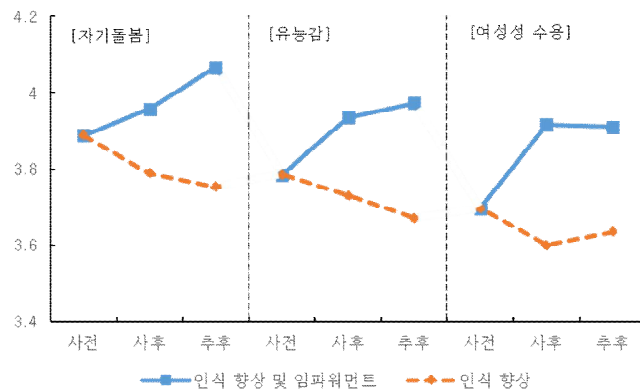


그림 1. 측정 시기에 따른 집단 별 자기돌봄, 유능감, 여성성 수용

하위 변인에 대해, 측정 시기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였다(그림 1 참조). 우선, 사후검사에서는 자기돌봄($F(1, 35)=2.04, p=.16$), 유능감($F(1, 35)=2.34, p=.14$), 여성성 수용($F(1, 35)=2.93, p=.09$) 모두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추후검사에서는 자기돌봄($F(1, 35)=6.26, p=.02$), 유능감($F(1, 35)=5.02, p=.03$), 여성성 수용($F(1, 35)=4.66, p=.04$) 모두 실험집단이 비교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일 집단 내에서 측정 시기에 따라

세 개 하위변인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실험집단에서는 자기 돌봄($t(19)=-2.60, p=.02$), 유능감($t(19)=-2.16, p=.04$), 여성성 수용($t(19)=-3.17, p=.01$)이 사전검사보다 추후검사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반면, 비교집단에서는 이러한 집단 내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우울, 진로 포부, 공동행동 참여 의도

프로그램 실시 이후 우울과 진로 포부 수준

표 7. 집단 내 시기 별 자기돌봄, 유능감, 여성성 수용

		사전	사후	추후	사전-사후		사후-추후		사전-추후	
		M(SD)	M(SD)	M(SD)	t(df)	p	t(df)	p	t(df)	p
자기 돌봄	실험	3.77 (0.49)	3.91 (0.45)	4.01 (0.54)	-1.14(19)	.27	-1.00(19)	.33	-2.60(19)	.02*
	비교	3.93 (0.48)	3.84 (0.50)	3.81 (0.50)	1.30(17)	.30	0.58(17)	.57	0.18(17)	.86
유능감	실험	3.64 (0.39)	3.84 (0.50)	3.88 (0.51)	-1.97(19)	.06	-0.32(19)	.76	-2.16(19)	.04*
	비교	3.94 (0.43)	3.83 (0.48)	3.78 (0.49)	1.07(17)	.30	0.58(17)	.57	1.92(17)	.08
여성성 수용	실험	3.61 (0.66)	3.89 (0.76)	3.88 (0.87)	-2.13(19)	.05	0.14(19)	.89	-3.17(19)	.01*
	비교	3.69 (0.51)	3.63 (0.59)	3.67 (0.59)	0.70(17)	.49	-0.35(17)	.73	0.62(17)	.54

주. * $p<.05$.

표 8. 측정시기에 따른 집단 별 우울과 진로 포부의 평균 및 표준편차

	우울		진로 포부	
	실험집단(n=20)	비교집단(n=18)	실험집단(n=20)	비교집단(n=18)
사전 검사 M(SD)	2.02(0.57)	1.97(0.62)	3.67(0.56)	3.60(0.74)
사후 검사 M(SD)	1.97(0.60)	1.90(0.52)	3.66(0.73)	3.82(0.65)

에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집단과 측정 시기를 독립변인으로, 우울과 진로 포부를 종속변인으로, 우울($r=.50, p<.01$) 및 진로 포부($r=.52, p<.01$)와 유의한 상관을 나타낸 사회적 바람직성을 공변인으로 한 반복측정 공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표 8 참조). 그 결과, 우울과 진로 포부 모두 집단의 주효과(우울, $F[1, 37]=0.44, n.s.$; 진로 포부, $F[1, 37]=2.66, n.s.$), 측정시기의 주효과(우울, $F[1, 37]=0.06, n.s.$; 진로 포부, $F[1, 37]=0.20, n.s.$), 집단과 측정시기의 상호작용효과(우울, $F[1, 37]=0.22, n.s.$; 진로 포부, $F[1, 37]=0.09, n.s.$)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추후검사에서 공동행동 참여 의도가 실험집단($M=2.96, SD=1.07$)과 비교집단($M=3.09, SD=0.84$)에서 서로 다른지 확인한 결과,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t(36)=-0.182, n.s.$). 따라서 가설 3, 4, 5는 지지되지 않았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경험학습 이론과 여성주의상담을 토대로 여자대학생들의 온정적 성차별주의 수준을 낮추고 임파워먼트 수준을 증진시키기 위한 온라인 단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실험집단에는 온정적 성차별에 대한 인식과 민감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과 함께 여성 임파워먼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구성된 3회기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실시하였고, 비교집단에는 온정적 성차별에 대한 인식 및 민감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구성된 3회기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선행 연구와 비교하고 상담실제에

지니는 시사점을 논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 모두 프로그램 참여 후 온정적 성차별주의 수준이 낮아졌으며, 이러한 변화는 추후검사까지 지속되었다. 두 집단 모두 온정적 성차별의 만연함과 부정적 영향을 인식하고 이를 자신의 삶과 연계시키는 활동에 참여했음을 고려했을 때, 인식 및 민감성 증진 활동은 여자대학생들의 온정적 성차별주의 수준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유사한 활동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그 효과를 검증한 선행 연구(김시연, 2016; Becker & Swim, 2011, 2012; Case, 2007)와 일치하는 결과로써, 교육적 개입을 통해 일반적으로 잘 인식되지 않는 성차별적 태도를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임파워먼트 관련 자료 분석 결과, 임파워먼트 총점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실시 후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임파워먼트 하위 요인인 자기돌봄, 유능감, 여성성 수용의 경우 추후검사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자기신뢰와 자기주장에 대해서는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에서 실시한 임파워먼트 개입의 효과가 임파워먼트의 특정 요소에 집중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효과는 즉각적이기 보다는 일정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임파워먼트 요소 중 자기돌봄, 유능감, 여성성 수용은 주로 내적인 힘(자기효능감, 유능감)과 이에 대한 자기평가를 나타내는 반면, 자기신뢰와 자기주장은 주로 대인관계 행동(타인과의 상호작용, 생각과 감정 표현)과 관련이 있다. 즉, 자기신뢰는 타인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정도와 자신의 선택에 대한 신뢰를 의미하고(예시 문항: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 경우, 그들이 옳은지 혹은 그

말을 무시해야 할지를 혼자서 결정하기 어렵다”), 자기주장은 타인에게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정도를 나타낸다(예시 문항: “관점이 다를 때 뒷사람에게 내 생각을 편안하게 말할 수 있다”). 개념적으로도 여성 임파워먼트는 개인 내적인 측면과 대인관계적 측면, 즉 개인의 자율성 및 자존감에 대한 욕구와 이를 타인에게 표현하는 욕구로 구분된다(김정미, 2004). 본 연구에서 개발한 온라인 프로그램이 반성적 글쓰기 등 주로 개인 내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었음을 고려했을 때, 프로그램 참여가 자기돌봄이나 유능감과 같은 미시적인 임파워먼트(박원우, 1998)에 변화를 초래하지만 자기주장과 같은 대인관계적 측면의 임파워먼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들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하고 이를 표현할 수 있으려면 대인관계에 초점을 둔 임파워먼트 요소를 프로그램의 활동 내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대인관계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확인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추가하거나, 온라인 집단 또는 커뮤니티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그 효과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구성개념을 평정하는 방식이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자기신뢰의 경우 모든 문항이 역채점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긍정형 문항과 부정형 문항에 비대칭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고 이로 인해 응답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한다(Swain, Weathers, & Niedrich, 2008). 실제로, 동일 개념을 측정하는 문항이지만 긍정형으로 제시된 문항과 부정형으로 제시된 문항의 평균값이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길곤, 탁

현우, 강세진, 2014). 본 연구에서도 부정형 문항으로만 구성된 자기신뢰의 경우 세 번의 측정 시점에서 다른 4개 하위 요인에 비해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러한 응답 오차와 낮은 점수로 인해 자기신뢰에서 집단 간 차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한편, 프로그램 실시 후 우울 수준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고 집단 간 차이 또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온정적 성차별에 대한 인식 향상으로 인해 파생되는 심리·정서적 불편감(본 연구에서는 우울)이 임파워먼트 개입을 통해 줄어들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비교집단의 경우는 예상과 일치하는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서론에 기술한 것처럼, 비교집단의 경우 온정적 성차별 인식 향상으로 인해 온정적 성차별을 수용하는 정도가 적어지고 우울 수준이 낮아지지만 인식되는 성차별 사건이 많아짐에 따라 우울감을 느껴 결국 우울 수준이 인식 향상 이전 상태로 회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임파워먼트 활동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경우에도 우울 수준이 감소하지 않았는데, 이는 임파워먼트 개입이 우울 수준을 감소시킨다는 선행연구(배제현, 정경용, 2013)와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한 가지 가능성은, 본 연구에서 개발한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이 참여자들의 임파워먼트 총점을 변화시키지 못했던 것처럼 우울 수준을 감소시킬 만큼 그 영향력이 크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다른 가능성은, 표본의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여자 대학생들은 실험 참여 이전에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우울을 보고했다. 동일한 척도를 사용한 선행연구에서 여자대학생들의 우울 평균은 2.55(김정호, 2003)인 반면, 본 연구에 참

여한 여자대학생들의 우울 평균은 1.99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적인 효과가 두드러지지 않은 임파워먼트 개입을 우울 수준이 낮은 참여자들에게 실시했기 때문에 이들의 우울 수준에 더 이상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우울 이외에 다른 심리·정서적 불편감(예, 분노, 무기력)을 변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그러나 관련 변인의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온정적 성차별 인식향상과 임파워먼트 증진으로 초래된 심리적 불편감의 변화를 간접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우선, 프로그램 참여 전후로 임파워먼트 하위요인인 유능감이 비교집단에서 감소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유능감을 측정하는 문항들(예: “현재 내가 처한 상황에 최대한 잘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선택한 삶을 자유롭게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을 고려했을 때, 유능감이 낮아지는 것을 무력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온정적 성차별에 대한 인식과 민감성이 향상될수록 성차별로 지각되는 사건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심리·정서적 불편감이 증가한다는 학자들의 주장(Fischer & Bolton-Holz, 2010; Moradi & Subih, 2002; Swim et al. 2001)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또한 흥미롭게도 온정적 성차별과 임파워먼트 간 관계가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에서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즉, 사전검사에서는 두 집단 모두 온정적 성차별과 임파워먼트 간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프로그램 참여 이후 두 변인의 관계가 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우선, 비교집단에서는 추후검사에서도 두 변인 간에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비교집단의 경우, 온정적 성차별에 대한 인식 수준이 증가하고 성차별에 대해 더욱 민감해졌지만 이

를 극복할 수 있는 대처전략(예, 임파워먼트)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부재했기 때문에, 결국 온정적 성차별 수용 정도가 클수록 임파워먼트 수준이 낮은(무력감 등 심리적 불편감이 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실험집단의 경우에는 추후검사에서도 온정적 성차별과 임파워먼트 간에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험집단에 참여한 여학생들의 경우 인식 향상을 위한 활동 뿐 아니라 임파워먼트 활동에 추가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온정적 성차별에 대한 인식 증진에 수반되는 심리적 불편감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 결국 온정적 성차별 수용 정도에 따라 임파워먼트 수준이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 결과 두 집단 모두 프로그램 참여 후 진로 포부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온정적 성차별 수용 정도가 경제력이나 더 높은 지위를 추구하려는 태도(Rudman & Heppen, 2003), 높은 지위를 획득할 수 있다는 믿음(Dasgupta & Asgari, 2004)과 부적인 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임파워먼트 개입이 여성의 진로 관련 효능감을 향상시킨다는 선행연구(Chronister & McWhirter, 2003; 2006)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한 가지 가능성은, 각각의 프로그램에서 진로 포부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관련해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온정적 성차별 인식 프로그램과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이 여자대학생들의 진로 포부 수준을 변화시킬 만큼 그 영향력이 크지 않았을 수 있다. 또 다른 가능성은, 표본의 특성에 기인한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여자대학생들은 실험 참여 이전에 상대적으로 진로 포부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척도를 사용한 선행연구에서 여

자대학생들의 진로 포부 평균은 2.89(손은령, 손진희, 2005)인 반면, 본 연구에 참여한 여자 대학생들의 진로 포부 평균은 3.74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미 진로 포부가 상대적으로 큰 여자대학생들이 연구에 참여했기 때문에 진로 포부 수준에 더 이상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참여 이후 여자대학생들의 공동행동 참여 행동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동행동 참여 의도 또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정적 성차별에 대한 인식이 증진될수록 공동행동 참여가 증가한다는 선행 연구(Becker & Wright, 2011)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다. 한편, 상관 분석 결과 실험집단에서만 임파워먼트 수준과 공동행동 참여 의도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확인되었다. 즉, 성차별주의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었지만 임파워먼트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교 집단에서는 임파워먼트와 공동행동 참여 의도 간에 상관이 유의하지 않은 반면, 온정적 성차별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었을 뿐 아니라 임파워먼트의 몇몇 요소가 증진된 실험 집단에서는 임파워먼트 수준이 증가할수록 공동 행동에 참여하려는 의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파워먼트 수준과 공동 행동 참여 간 관련성을 확인한 선행 연구(Worell, 2001)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 개발한 인식향상 및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이 참여자들의 사회 참여 관련 ‘행동’보다는 ‘의도’에 영향을 미쳤고, 온정적 성차별에 대한 인식 향상이 아니라 임파워먼트가 공동행동 참여 의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경험과 온정적 성차별을 연

관 짓는 등 개인적인 맥락에서 온정적 성차별을 극복하고 임파워먼트를 증진시킬 수 있는 활동 위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이로 인해, 개인 내적인 측면의 ‘의도’에서는 변화가 있었으나, 보다 단위가 크고 외현적인 성차별 극복 행동까지는 변화를 유도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사회적인 맥락에서 실제 행동 계획을 세우는 등의 활동을 프로그램에 포함시킨 후, 이것이 사회적인 맥락에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을 논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모두 프로그램 참여 후에 온정적 성차별 수용 정도가 감소했는데, 두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한 개입의 내용과 방식을 상담 장면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두 집단 모두 일상생활에 존재하는 온정적 성차별의 특징과 배경, 부정적인 영향을 설명하는 글을 읽고, 자신의 삶에서도 이와 유사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를 반성적으로 성찰하는 경험을 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 참여자들은 성차별주의가 자신과 유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자신의 삶과 연계되어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 이러한 개입 방식을 개인 및 집단상담, 심리교육에 적용한다면 여자 대학생들의 온정적 성차별에 대한 인식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높은 수준의 온정적 성차별 태도를 지니고 있으면서 이로 인해 파생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내담자, 즉 자신의 가능성을 부정하고 제한하는 내담자에게 온정적 성차별 관련 정보를 읽기 자료로 제시한 후 이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상담자와 공유하도록 격려한다면, 내담자

는 평소 알아차리지 못했던 자신 및 타인에 대한 온정적 성차별 태도를 발견하고 이를 수정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구조화된 집단상담에서 온정적 성차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후 집단원 서로가 자신이 경험한 온정적 성차별을 공유함으로써 일상에 만연한 온정적 성차별에 대한 민감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앞서 기술한 것처럼 비교집단에서는 추후검사에서 온정적 성차별과 여성 임파워먼트 간에 부적 상관이 나타난 반면, 실험집단에서는 프로그램 참여 후 임파워먼트의 몇몇 요소들이 향상되었을 뿐 아니라 온정적 성차별이 임파워먼트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성차별주의가 만연한 현대 사회에서 여성들이 온정적 성차별주의를 온전히 극복할 수 있으려면, 단순히 온정적 성차별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식 증진으로 인해 경험할 수 있는 심리적 불편감을 예방하고 줄이는 노력, 예를 들어 여성의 임파워먼트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는 개인과 집단을 대상으로 여성에 대한 온정적 성차별을 상담하고 교육하는 상담자에게 더욱 민감하고 균형 있는 개입을 요구한다. 즉, 상담자는 여성 내담자가 온정적 성차별의 존재와 그 영향을 인식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동시에, 그러한 인식 증진이 가져다주는 일시적인 부정적 영향을 함께 인지하도록 조력하고, 인식 증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불편감을 예상하고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임파워먼트 전략을 함께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내담자의 자아강도와 자존감, 문제대처능력 등을 향상시키는 임파워먼트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성차별에 대한 인식이 증

진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인 불편감을 조절하고 관리하도록 조력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처럼 상담자가 내담자의 강점과 자원을 발견하도록 조력할 뿐 아니라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인식하도록 격려한다면, 성차별 인식 향상으로 인해 초래되는 심리적 불편감을 해소하거나 상쇄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은 회기당 10분씩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이는 단기간의 개입을 통해서도 여자대학생들의 온정적 성차별주의 수준을 낮출 수 있을 뿐 아니라 임파워먼트 수준 또한 부분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연구 참여자들이 온라인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점을 고려하면, 시간, 비용, 접근 가능성 등에서 이점을 가지고 있는 온라인 활동이 여성들의 성차별 인식과 임파워먼트를 향상시키는데 실효성 있는 대안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을 다양한 상담 장면에서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에 포함된 활동을 기법의 형태로 상담 회기 중에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회기와 회기 사이에 과제로 제시한 후 활동에 참여하면서 내담자가 가졌던 의문이나 성찰을 다음 회기에 상담의 소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온라인 활동 프로그램은 대면 상담 이외에도 심리교육이나 자조(self-help) 개입의 일환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학 내 상담센터나 성평등센터, 인권센터 등의 기관 홈페이지에 프로그램을 탑재하여, 여자대학생들이 자신의 온정적 성차별 인식 수준을 점검하고 실생활에서 극복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프로그램 실시와 관련하여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도 탈락한 참여자들의 임파워먼트 수준이 다른 참여자들보다 낮았다는 것이다. 이는 참여자들의 임파워먼트 수준이 낮을 경우 본 연구에서 개발한 온라인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기가 어려움을 시사한다. 임파워먼트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이를 피하려는 성향이 강하고, 해야 할 일을 모두 이행하기 어려울 때 그 상황을 아예 회피한다(임명기, 하유진, 오동준, 손영우, 2014; Vauth, Kleim, Wirtz, & Corrigan, 2007). 본 연구에서도 임파워먼트 수준이 낮은 참여자들은 세 번의 프로그램 활동 참여와 글로써 자신의 생각 또는 감정을 표현하는 활동에 직면했을 때 이를 회피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자아강도 등 임파워먼트 수준이 낮은 여학생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개입을 적용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활동을 프로그램 마지막에 제시했는데, 만일 여자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활동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자아강도 수준을 높인 후 성역할 분석 등의 활동을 제시한다면, 여자대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우선, 전국에서 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했는데, 주로 특정 커뮤니티에서 참여자가 모집되어 연구 결과에 이용자 특성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연구 참여자의 과반수가 서울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이어서, 연구 결과를 타 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여자대학생들에게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했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가 여자 청소년이나 직장인, 기혼여성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달리하는 집단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는 추후 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식향상 프로그램 내용 중에는 결혼이나 직장 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성차별을 상상해보는 것이 있었는데, 후속연구에서는 대학생 시기에 여자대학생들이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입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 안내문을 보고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한 여자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기 때문에, 참여자들의 자기선택 편향(self-selection bias)이 설문지 반응이나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즉,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자발적 동기가 부족하거나 자아강도 등 임파워먼트 수준이 낮은 여자대학생들에게 본 프로그램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는지는 추후 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최종 자료 분석에 사용된 연구 참여자의 수가 많지 않다는 것 또한 연구의 제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검정력 분석을 통해 중간 정도의 효과크기를 도출할 수 있는 사례 수를 확인하였고, 중도탈락자를 고려하여 그 보다 더 많은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그러나 사전검사 실시 이후와 프로그램 진행 도중에 탈락자들이 발생했는데, 이로 인해 통계적 검정력이 낮아져 실제로 존재하는 차이나 변화를 탐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를 한계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공동행동 의도 척도를 번역-역번역한 후 사용했는데, 엄밀한 타당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척도를 사용한 점은 연구의 한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모든 변인을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했는데, 응답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왜곡해서 응답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온정적 성차별의 경우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후에는 요구특성(demand characteristics)이 반영되어 참여자들의 반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들은 주로 인지적, 태도적 측면을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하고 있는데, 본 프로그램의 효과를 해석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 측정된 변인들로는 참여자의 무의식적 차별 태도, 성차별적 상황에 대한 정서적 반응(예: 죄책감, 분노)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변인을 측정하거나 행동 관찰 또는 암묵적 태도를 측정하는 도구들을 채택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포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두 개 집단, 즉 온정적 성차별 인식 향상을 목표로 한 집단과 인식 향상 및 임파워먼트를 목표로 한 집단을 비교했는데, 임파워먼트 개입만 실시한 제 3의 비교 집단을 추가로 설정했다면 인식 향상과 임파워먼트의 차별적인 효과를 보다 정확히 검증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의 1회기는 온정적 성차별주의에 대한 인식 향상, 2회기와 3회기는 임파워먼트 증진을 목적으로 구성되었고, 연구 결과 추후검사에서 참여자들의 임파워먼트 하위요인들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 설계를 통해서 참여자들의 임파워먼트가 정확히 어떤 회기의 어떤 활동을 통해 향상된 것인지 식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각 활동의 효과를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는 도구들을 활용하거나, 프로그램 중간의 평가, 또는 과정 평가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주로 강간 통념,데이트 폭력, 포르노그래피(김재은, 김지현, 2016; 심재웅, 2008; 정윤아, 2013) 등의 맥락에서 양가적 성차별주의를 논의해왔는데, 본 연구에서는 여자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온정적 성차별주의를 특정해서 그 변화를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국내에 여성주의상담 이론과 실무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이주연, 2015), 본 연구는 여성주의상담의 핵심 개념인 임파워먼트에 초점을 맞추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한 최초의 연구라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고길곤, 탁현우, 강세진 (2014). 설문조사에서 문항의 역코딩 여부가 응답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학보*, 49(3), 515-539.
- 곽금연 (2009). 청소년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의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처 인식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성호 (1997).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정 및 학습자료개발에 관한 연구. *교육공학연구*, 13(2), 1-26.
- 김경희 (2004). 일상의 정치(politics of everyday life)를 통한 여성의 임파워먼트.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9(1), 163-179.
- 김성희, 김정미 (2004). 여성 임파워먼트 척도 개발. *상담학연구*, 5(2), 307-324.
- 김시연 (2016). 우호적 성차별주의가 직무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및 인지적 개입의 효과.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안나, 최승아 (2013). 결혼이주여성 임파워먼트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학*,

- 29(2), 189-229.
- 김양희, 정경아 (2000).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 사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 (1), 23-44.
- 김용석 (2010).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의 개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2(3), 1-39.
- 김재은, 김지현 (2016). 성별에 따른 남성중심 집단과 여성중심집단의 양가적 성차별주의와 강간통념의 관계. *상담학연구*, 17(1), 187-205.
- 김정미 (2004). 여성임파워먼트 증진을 위한 인지행동 집단상담과 계슈탈트 집단상담 비교.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정미 (2009). 여교사의 임파워먼트, 직무스트레스와 소진과의 관계. *한국교원교육연구*, 26(1), 177-199.
- 김정미, 김성희 (2005). 여성임파워먼트 증진을 위한 인지행동 집단상담과 계슈탈트 집단상담 비교. *상담학연구*, 6(3), 821-235.
- 김정호 (2003). 여대생들의 배변관련 증상과 심리적 요인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2), 375-397.
- 노이경, 정남운 (2007). 인성교육을 목적으로 한 구조화된 집단상담의 성장촉진요인.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4(2), 99-123.
- 박세원 (2012). 존재론적 탐구로서의 저널쓰기. *교육인류학연구*, 15(1), 1-58.
- 박애선, 이영희 (1994). 여성주의 집단상담이 여대생의 여성주의 정체성 발달수준과 적응변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6(1), 119-141.
- 박원우 (1998). *임파워먼트 실천 매뉴얼*. 서울: 시그마컨설팅 그룹.
- 박하나, 장수미 (2012). 성장기 부모 간 폭력목적 경험과 데이트성폭력피해의 관계 피해 여대생 음주행동의 조절효과.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0(1), 149-176.
- 배성우, 신원식 (2005). CES-D 척도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 의 요인구조 분석. *보건과 사회과학*, 18, 165-190.
- 배제현, 정경용 (2013). 긍정심리강화 프로그램이 전문대학생의 행복감 증진에 미치는 효과.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4(3), 113-147.
- 손은령, 손진희 (2005). 한국 대학생의 진로결정 및 준비행동: 사회 인지적 진로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2), 399-417.
- 심재웅 (2008). 포르노그래피 이용이 대학생들의 성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2(6), 167-188.
- 안상수, 김혜숙, 안미영 (2005). 한국형 양가적 성차별주의 척도 (K-ASD)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 (2), 39-66.
- 안상수, 백영주, 김인순, 김혜숙, 김진실 (2007). 한국형 다면 성별 의식 검사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 여성 정책 연구원*.
- 오보영, 이상희 (2013). 한국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지위에 따른 진로태도성숙, 자아존중감, 우울 및 대학적응의 차이: VISA 모형을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26(1), 47-67.
- 오옥선 (2014).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부정정서, 심리적 안녕감 및 임파워먼트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0(1), 45-65.
- 오테호 (2012). 자기성찰적 글쓰기의 이론과 실제: 경희대 글쓰기 1 교재 ‘나를 위한 글쓰기’와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43, 65-99.

- 유경희, 김기중 (2004). 여성주의 집단상담이 이혼(별거) 여성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9(1), 103-119.
- 유성경, 홍세희, 이아라 (2006). 남녀 학업 우수 청소년이 지각하는 진로장벽과 진로포부의 관계에서 학업 효능감의 매개모형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4), 837-851.
- 이정원, 김혜숙 (2012). 강간사건 판단에 주변 단서들이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6(1), 47-73.
- 이주연 (2015). 국내 여성주의 상담 연구 동향 분석.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명기, 하유진, 오동준, 손영우 (2014). 한국판 잡 크래프팅 척도 (JCQ-K) 의 타당화 연구. *기업경영연구*, 56, 181-206.
- 임윤서, 안윤정 (2016). 여대생의 자기성찰에서 드러난 '여성으로서 일'의 의미 탐색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1(2), 195-228.
- 전경구, 권기덕, 김상기 (1999). 한국판 CES-D 개정연구: I. 사회과학연구, 6(1), 429-452.
- 전경구, 최상진, 양병창 (2001). 통합적 한국판 CES-D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1), 59-76.
- 정윤아 (2013). 한국 남자대학생의 여성역할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 양가적 성차별주의, 폭력에 대한 태도, 연인 관계 태도의 한, 미 비교를 중심으로. *덕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충용 (2001). 온라인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전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금희 (2014). 조직사회화 교육 프로그램이 신규 간호사의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 의도에 미치는 효과. *보건의료산업학회지*, 8(3), 89-102.
- 최명민 (2002). 사회복지사 셀프-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수옥 (2002). 여대생의 진로포부에 영향 미치는 요인 탐색.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허운나 (1996). 21세기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과 멀티미디어 교육. *대한전자공학회 세미나*, 5-15.
- Barreto, M., Ellemers, N., Piebinga, L., & Moya, M. (2010). How nice of us and how dumb of me: The effect of exposure to benevolent sexism on women's task and relational self-descriptions. *Sex Roles*, 62(7-8), 532-544.
- Becker, J. C., & Swim, J. K. (2011). Seeing the unseen attention to daily encounters with sexism as way to reduce sexist belief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5(2), 227-242.
- Becker, J. C., & Swim, J. K. (2012). Reducing endorsement of benevolent and modern sexist beliefs. *Social Psychology*, 43(3), 127-137.
- Becker, J. C., & Wright, S. C. (2011). Yet another dark side of chivalry: Benevolent sexism undermines and hostile sexism motivates collective action for social chang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1(1), 62-77.
- Bowen, N. K., Wegmann, K. M., & Webber, K. C. (2013). Enhancing a brief writing intervention to combat stereotype threat among middle-school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05(2), 427-435.
- Case, K. A. (2007). Raising male privilege

- awareness and reducing sexism: An evaluation of diversity course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1(4), 426-435.
- Case, K. A., Hensley, R., & Anderson, A. (2014). Reflecting on heterosexual and male privilege: Interventions to raise awareness. *Journal of Social Issues*, 70(4), 722-740.
- Chronister, K. M., & McWhirter, E. H. (2003). Applying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to the empowerment of battered women.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81(4), 418-425.
- Chronister, K. M., & McWhirter, E. H. (2006). An experimental examination of two career interventions for battered wo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3(2), 151-164.
- Cohen, J. (2013).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New York: Academic press.
- Dardenne, B., Dumont, M., & Bollier, T. (2007). Insidious dangers of benevolent sexism: Consequences for women's perform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3(5), 764-779.
- Dasgupta, N., & Asgari, S. (2004). Seeing is believing: Exposure to counter-stereotypic women leaders and its effect on the malleability of automatic gender stereotyping.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0(5), 642-658.
- Downing, N. E., & Roush, K. L. (1985). From passive acceptance to active commitment a model of feminist identity development for women. *The Counseling Psychologist*, 13(4), 695-709.
- Dumont, M., Sarlet, M., & Dardenne, B. (2010). Be too kind to a woman, she'll feel incompetent: Benevolent sexism shifts self-construal and autobiographical memories toward incompetence. *Sex Roles*, 62(7-8), 545-553.
- Eagly, A. H. & Mladinic, A. (1993). Are people prejudiced against women? Some answers from research on attitudes, gender stereotypes, and judgments of competence.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5(1), 1-35.
- Enns, C. Z. (2003). Contemporary adaptations of traditional approaches to the counseling of women. In M. A. Keitel & M. Kopala (2003). *Handbook of Counseling Women* (pp. 3-21). Thousand Oaks: SAGE.
- Farmer, H. S. (1984). Development of a measure of home-career conflict related to career motivation in college women. *Sex Roles*, 10(9-10), 663-675.
- Faul, F., Erdfelder, E., Buchner, A., & Lang, A. G. (2009). Statistical power analyses using G*Power 3.1: Tests for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es. *Behavior Research Methods*, 41(4), 1149-1160.
- Feather, N. T. (2004). Value correlates of ambivalent attitudes toward gender relation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0(1), 3-12.
- Fischer, A. R., & Bolton-Holz, K. (2010). Testing a model of women's personal sense of justice, control, well-being and distress in the context of sexist discriminatio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4(3), 297-310.
- Glick, P., & Fiske, S. T. (1996). The ambivalent sexism inventory: Differentiating hostile and benevolent sex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 Social Psychology*, 70(3), 491-512.
- Glick, P., Fiske, S. T., Mladinic, A., Saiz, J. L., Abrams, D., Masser, B. et al. (2000). Beyond prejudice as simple antipathy: Hostile and benevolent sexism across cultur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5), 763-775.
- Good, J. J., & Woodzicka, J. A. (2010). Reducing approval of benevolent sexism: An educational intervention. *The New School Psychology Bulletin*, 7(1), 16-30.
- Hammond, M. D., Overall, N. C., & Cross, E. J. (2016). Internalizing sexism within close relationships: Perceptions of intimate partners' benevolent sexism promote women's endorsement of benevolent sex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0(2), 214-238.
- Harlan, J. (1998). *Feminism: A reference handbook*. Santa Barbara, CA: ABC-CLIO.
- Henderson-King, D. H., & Stewart, A. J. (1994). Women or feminists? Assessing women's group consciousness. *Sex Roles*, 31, 505-516.
- Hintz, S., Frazier, P. A., & Meredith, L. (2015). Evaluating an online stress management intervention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2(2), 137-147.
- Jackman, M. R. (1994). *The velvet glove: Paternalism and conflict in gender, class, and race relations*.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Jezzini, A. T. (2013). *Acculturation, marianismo gender role, and ambivalent sexism in predicting depression in Latinas*. Unpublished dissertation. University of Denver, Denver, CO.
- Jost, J. T., & Hunyady, O. (2005).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system-justifying ideologies.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4(5), 260-265.
- Jost, J. T., & Kay, A. C. (2005). Exposure to benevolent sexism and complementary gender stereotypes: Consequences for specific and diffuse forms of system justif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3), 498-509.
- Kaplan, R. M. (2000). Two pathways to prevention. *American Psychologist*, 55(4), 382-396.
- Kilianski, S. E., & Rudman, L. A. (1998). Wanting it both ways: Do women approve of benevolent sexism?. *Sex Roles*, 39(5-6), 333-352.
- Kolb, D. (1984). *Experiential learning as the science of learning and development*. Ea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 Hall.
- Lim, M., Tormshak, E. A., & Dishion, T. J. (2005). A one-session intervention for parents of young adolescents videotape modeling and motivational group discussion. *Journal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13(4), 194-199.
- Lloyd, S. R., & Berthelot, C. (1992). *Self-empowerment: How to get what you want from life*. London: Keegan Page.
- Malkin, C., & Stake, J. E. (2004). Changes in attitudes and self-confidence in the women's and gender studies classroom: The role of teacher alliance and student cohesion. *Sex Roles*, 50(7-8), 455-468.
- Marks, I., Susan, S., & Parkin, R. (1998). Computer-aided treatments of mental health problems. *Clinical Psychology: Science and Practice*, 5(2), 151-170.
- Moradi, B., & Funderburk, J. R. (2006). Roles

- of perceived sexist events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in the mental health of women seeking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3(4), 464-473.
- Moradi, B., & Subich, L. M. (2002). Feminist identity development measures comparing the psychometrics of three instrument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0(1), 66-86.
- Murrell Jr, P. C. (2001). *The community teacher: A new framework for effective urban teaching*.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Columbia University.
- O' brien, K. M. (1992). *Career Aspiration Scale*.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MD.
- O'brien, K. M., & Fassinger, R. E. (1993). A causal model of the career orientation and career choice of adolescent wo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0(4), 456-469.
- Overall, N. C., Sibley, C. G., & Tan, R. (2011). The costs and benefits of sexism: Resistance to influence during relationship confli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1(2), 271-290.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3), 385-401.
- Rappport, J. (1984). Studies in empowerment: Introduction to the issue. *Prevention in Human Services*, 3(2-3), 1-7.
- Rudman, L. A., & Heppen, J. B. (2003). Implicit romantic fantasies and women's interest in personal power: A glass slipper effec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9(11), 1357-1370.
- Shellman, A. (2014). Empowerment and experiential education a state of knowledge paper. *Journal of Experiential Education*, 37(1), 18-30.
- Shnabel, N., Bar-Anan, Y., Kende, A., Bareket, O., & Lazar, Y. (2016). Help to perpetuate traditional gender roles: Benevolent sexism increases engagement in dependency-oriented cross-gender help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0(1), 55-75.
- Spence, J. T., & Helmreich, R. L. (1972). *The attitudes toward women scale: An objective instrument to measure attitudes toward the rights and roles of women in contemporary society*. *JSAS Catalogue of Selected Document in Psychology*, 2, 66-67.
- Swain, S. D., Weathers, D., & Niedrich, R. W. (2008). Assessing three sources of misresponse to reversed Likert item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45(1), 116-131.
- Swim, J. K., Aikin, K. J., Hall, W. S., & Hunter, B. A. (1995). Sexism and racism: Old-fashioned and modern prejudi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2), 199-214.
- Swim, J. K., Hyers, L. L., Cohen, L. L., & Ferguson, M. J. (2001). Everyday sexism: Evidence for its incidence, nature, and psychological impact from three daily diary studies. *Journal of Social Issues*, 57(1), 31-53.
- Vauth, R., Kleim, B., Wirtz, M., & Corrigan, P. W. (2007). Self-efficacy and empowerment as outcomes of self-stigmatizing and coping in schizophrenia. *Psychiatry Research*, 150(1), 71-80.

- Worell, J. (2001). Feminist interventions: Accountability beyond symptom reductio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5(4), 335-343.
- Worell, J., & Remer, P. (1992). *Feminist perspectives in therapy: An empowerment model for women*. New York: John Wiley & Sons.
- Yakushko, O. (2007). Do feminist women feel better about their lives? Examining patterns of feminist identity development and women's subjective well-being. *Sex Roles*, 57(3-4), 223-234.
- Yoder, J. D. (2012). Finding optimal functioning in a sexist world: A social justice challenge. *The Counseling Psychologist*, 40(8), 1172-1180.
- Yoder, J. D., Mills, A. S., & Raffa, E. R. (2016). An effective intervention in research methods that reduces psychology majors' sexist prejudices. *Teaching of Psychology*, 43(3), 187-196.
- Zawadzki, M. J., Danube, C. L., & Shields, S. A. (2012). How to talk about gender inequity in the workplace: Using WAGES as an experiential learning tool to reduce reactance and promote self-efficacy. *Sex Roles*, 67(11-12), 605-616.
- Zawadzki, M. J., Shields, S. A., Danube, C. L., & Swim, J. K. (2014). Reducing the endorsement of sexism using experiential learning the workshop activity for gender equity simulation (WAGE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8(1), 75-92.

원 고 접 수 일 : 2018. 04. 27

수정원고접수일 : 2018. 07. 30

계 재 결 정 일 : 2018. 09. 06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an Online Empowerment Program for Female College Students to Overcome Benevolent Sexism

Seung Won Lee

Suicide and School Mental Health Institute

Young Seok Seo

Yonsei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developed and evaluated an online intervention program that aimed to help Korean female students recognize prevalence and negative effects of benevolent sexism and to overcome the accompanying psychological distress. A three-session online intervention emphasizing awareness-raising and empowerment (experimental group), which was developed based on experiential learning theory and feminist therapy, was tested against another three-session online intervention consisting of awareness-raising only (comparison group). The results showed that benevolent sexism decreased in both groups (experimental: $n=20$, comparison: $n=18$), while only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significant changes across multiple elements (self-nurturance, self-confidence, the femininity acceptance). Neither group showed changes in career-aspiration and depression after the intervention, nor in collective action intention in the follow-up test. The implications and future direction are discussed.

Key words : benevolent sexism, empowerment, experiential learning theory, feminist therapy, program development